

文 對 비주류 ‘지도체제 개편’ 빅뱅

새정치 오늘 오픈프라이머리 의총 긴장 고조

주류 ‘공천안 지키기’나서...安·朴은 文에 결단 촉구

12일로 예정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 민경선제) 의원 총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의원총회는 주류 측이 주도한 공천혁신안에 맞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지렛대로 당내 비주류의 세 걸집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워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천 룰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주류 진영에서는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은 중앙위원회의 결을 마친 수정 불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천안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비주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통합선대위 조기 구성 등 지도체제 개편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12일 국민대에서 강연을 통해 문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같은 날 문 대표와 회동, 정치적 결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당내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박 전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년 총선 실패가 눈에 뻐 보이고, 두 번의 재·보선에서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왜 자기도 죽고 당도 죽이려고 하느냐”며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대선 후보의 길로 가는

것이 본인도 좋고 당도 좋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비주류 인사들이 모인 ‘정치혁신을 위한 2020 모임’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진영논리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독과점적 정당체제는 타파되어야 한다”며 “권역별 연동형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확립, 연정형 권력구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 모임에는 이상민 노동래 문병호 유성엽 이춘석 정성호 최재천 권은희 송호창 최원식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고, 문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 모임이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표방했지만 참여 의원들의 면면이나 결성 취지를 볼 때 결국 총선 전후 등 중장기적으로 주류 측과의 주도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참여 의원 다수가 17대 국회 때 ‘민생정치모임(민생모)’을 함께

하는 등 무소속 전정배 의원과 가깝다는 점을 볼 때 향후 전 의원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안 전 대표와 가까운 송호창 의원이 참여한 점을 볼 때 안 전 대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공천 혁신안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당내 세력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 출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과 통합을 기치로 내건 가장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의 회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유성엽·문병호·최원식 의원. /연합뉴스

새정치 “朴대통령 노골적 선거 개입” 강력 반발

“진실한 사람 선택” 발언 盧 탄핵 정국과 비교 총공세

이종걸 “주권자 모욕...유신의 밀실에서 나오시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아야 한다”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전 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 “영혼 포기 발언” “몇 번은 탄핵받을 사안” 등 거친 표현이 쏟아졌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

했던 사실을 되새기며 총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 시켜달라는 노골적인 당선운동인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비박근혜)에 대한 노골적 낙선운동”이라며 “박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분노 조절장애’가 나날이 심해지면서 국민의 분노조절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의를 짓밟고 그 밭은 정신개조에 나섰다”며 “유신시대보다 더 갑갑한 밀실에서 집필한 교과서로 국민 혼까지 바꾸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미 유신을 훌쩍 넘어선 신독재”라며 “대통령은 이제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서 시공초월화법을 선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절실한 요청”이라며 “대통령의 충정을 제대로 좀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시급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 4개 법안 등 중요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

野 예산소위 광주·전남 권은희 유일

여 9명·야 8명 확정...이정현 의원 막판 포함

2016년 예산안의 항목별 증액과 삭감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안상수·나성린·박명재·이우현·이종배·이정현 의원 등 9명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저녁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이인영·박병계·이상직·최원식·권은희·배재정 의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예산조정소위에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배재정 의원,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권은희 의원(광산울이)이 포함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광주·전남 몫으로 광주시당위원장인 박해자 의원(서구 울이)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권은희 의원으로 교체됐다.

박해자 의원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조정소위에 배정됐다고 통

보받았는데 막판에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모 의원은 “박 의원이 예산조정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알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에서는 예산조정소위 위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초 검토했던 전남지역 의원이 아닌 인천 출신의 최원식 의원을 포함시켰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호남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인사와 예산 등 전방위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호남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기가 막힌다”며 “예산조정소위 구성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예산조정소위 위원 8명 가운데 수도권 지역 출신은 정성호, 이인영, 안민석, 최원식 의원 등 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이 막판에 예산조정소위에 포함됐

천정배, 신당 창추위 18일 출범

야권 신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오는 18일 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천 의원은 오는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 추진위원회 전국에서 모인 창당 지지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출범식에서 가장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어 나아갈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공개하고 창당 비전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창당추진위원장에 모아지고 있다. 개혁성은 물론 정치적

중량감 측면에서 신당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가 창당추진위원장을 맡아야 신당 출범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 의원 진영에서는 후보군 압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막판 거물급 인사가 창당추진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천 의원 진영 핵심 관계자는 “천 의원이 창당추진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추진위원 후보군들도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추진위원 규모를 놓고 막판 논의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평가브리핑

“정부는 수영대회 지원책 즉각 수립하라”

박해자 새정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은 11일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는 수영대회 부정 유치 발언을 사죄하고 즉각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데 대한 반발이다. 송 차관은 지원예산 전액 삭감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치 당시 정부보증을 위조한 위법사항이 있어 지원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보증서 위조 논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이미 치유됐다”며 “연루된 공무원도 이런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충행기자 golee@